

“더 새로운 장흥 온다… 상향식 모델 추진 성과”

민선 8기 3년

김성 장흥군수

전라남도 장흥군이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대형 국책사업과 공공시설 유치를 최대 성과로 꼽았다. 이는 상향식 모델의 ‘장흥형 혁신도시’ 추진 성과라는 설명이다.

26일 장흥군에 따르면 김성 장흥군수는 민선 8기 3주년을 앞두고 지난 24일 장흥군청 회의실에서 ‘지역 언론인 간담회’를 개최, 분야별 성과 발표와 군정 중점 방향 설명, 현안 질의응답 등을 진행했다.

이날 군은 기존의 혁신도시가 중앙정부 주도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하향식 방식이라면, 장흥은 창의적 접근을 통해 대규모 국책기관 유치에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장흥군은 민선 8기 대한민국 체육인재 개발원, 국립 장흥호국원,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전관산등산학교, 전라남도기록원 등을 차례로 유치한 바 있다.

그린바이오분야에서도 호남권역 산림

7151억원 규모 국도비 공모 등 국책사업·공공시설 유치 활발

바이오 가공단지,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사업 등을 선점하며 지역 미래 산업 육성에도 한발 앞서가고 있다.

장흥군은 지속적인 국책·공공시설 유치를 통해 생활인구 100만명 증가, 정부의 제2차 지방 공공기관 이전 등에 대해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도비와 대형 SOC 사업 확보 부문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민선 8기 들어 정부와 국회 등에 체계적인 예산확보 활동과 펼친 결과, 현재까지 212건, 총사업비 기준 7151억원 규모의 국도비 공모사업을 유치했다. 이 같은 성과는 전남도 내 최다, 장흥군 역사상 최대 실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

성과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앞으로의 군정 운영 방향 설명과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김성 군수는 사계절 축제 도입방안에 대한 질문에 “장흥군은 여름 물축제, 가

을 통합의학박람회, 겨울 해맞이행사 등의 축제가 있는데, 봄 축제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봄철에 노벨문학축제를 구상해 사계절 관광객들의 방문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청년 인구 확보 대책에 대해서는 기본소득을 보장과 공공기관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집중하고, 지역민 소득향상에 대한 질의에서는 친환경 인증 비율을 높이고 지역 전략작물 육성, 농·수산물 수출확대, 장흥한우 명품화 추진 등을 구체적인 전략으로 꼽았다.

이 밖에도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소상공인 육성, 지방소멸 대응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개선을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국책사업과 공모사업을 통해 유치한 장흥군의 신성장산업들은 주민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군민과 함께 장흥의 위대한 역사,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표고 대체육’ 업무협약 체결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이 장흥 원목표고를 활용한 대체육 제품의 유통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해 민간 기업과 손을 맞잡았다. (사진)

(재)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은 최근 전남진표고주식회사(대표 김예식), 주식회사 로컬오누이(대표 편호준)와 표고 대체육 산업화를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표고 대체육 연구 결과의 산업화 △지역 특산물 기반 제품의 유통·매 확대 △기술 및 제품 정보 공유 등을 골자로 한다. 협약식은 장흥군청에서 진행됐다.

버섯산업연구원은 지난해 8월부터 장흥 원목표고를 활용한 식물성 대체육 제형 개발과 시제품 제작, 패키지 디자인 등을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고기 대체 식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장흥의 대표 농특산물인 원목표고버섯을 활용한 대체육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건강·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 식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표고 대체육은 새로운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장흥=김전환 기자

광양시, 국제농업박람회 농식품관 입점 업체 모집

전라남도 광양시가 2025 국제농업박람회 농식품관 내 홍보부스에 입점해 지역 농산물과 농가공품을 전시·판매할 관내 업체 및 농업경영체 2개소를 모집한다.

26일 광양시에 따르면 2025 국제농업박람회는 오는 10월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나주시 산포면 소재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개최된다.

도내 22개 시군이 참가해 농식품관 내에서 홍보·판매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며, 광양시도 관내 우수 농특산물을 전시하고 포토존 및 SNS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선정된 2개 입점업체에는 박람회 기간 현장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품을 홍보·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입점 자격은 광양시에 소재한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농업 관련 법인 또는 농업경영체이며, 판매 품목은 직접 생산한 농산물 또는 관내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한 가공식품 등이다.

입점을 희망하는 업체나 농가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해 오는 30일까지 광양시청 기술보급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기술보급과 기술지원팀(061-797-3323)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안영준 기자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 예방 고흥군, 하천·우수관로 준설작업

전라남도 고흥군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및 하천 범람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까지 관내 주요 하천과 우수관로를 대상으로 준설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사진)

군은 지난 4월부터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농경지 배수로, 하천, 우수관로 등에 대해 예비 점검을 실시하고, 우선 정비가 필요한 구역을 선정해 침수 취약 구간에 대한 대대적인 준설과 정비를 추진,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고흥천과 녹동천 등 도심지를 관류하는 하천과 읍·면소재지의 배수관로를 우선 정비했으며, 도로 상습 침수 구간의 측구와 간척지 내 배수로 준설작업도 함께 실시해 주민 불편 해소와 농경지 침수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군은 올해 상반기 사업비로 10억원을 투입해 16개 읍면의 침수취약지역에 △하천 준설 11km △우수관로 정비 20.8km △우수관로 정비 10.8km를 완료했으며 호우시 고흥천 내 부유물 확산 방지를 위해 장수제 상류에 오탁방지망을 설치해 부유 쓰레기를 신속히 제거할 계획이다.

또 지난 20일 도심지 측구, 배수로, 우수관로 정비 등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1억 9300만원을 확보하고 전통시장 관로 및 빗물받이 등 추가 정비에도 나서고 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여름철 기상이변으로 인한 국지성 호우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우수관로와 배수로 준설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이고도 중요한 조치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심하고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시설물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재해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고흥=심정우 기자



장흥 유치면, 도로환경 경관 정비

장흥군 유치면 직원들이 최근 도로 경관을 저해하고 차량통행을 방해하는 잡초와 덩굴류를 제거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천년 자생 전남 토종자원 ‘산돌배’ 복원 나선다

이반촌농원, ‘산돌배’ 산업화 포럼

국내에서 1000년 이상 자생해 온 전라남도 토종 산돌배의 문화를 복원하고, 돌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포럼이 개최됐다.

농업회사법인 이반촌농원(주)은 지난 25일 순천 저전나눔터에서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 한춘옥 전남도의원, 이복남 순천시의원, 송명선 순천시 농식품유통과장, 방수진 신성장산업과장 등 관계자와 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토종자원 산돌배 기능식품 산업화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산돌배의 산업화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마련된 이날 포럼은 (재)전남테크노파크, 전남대학교 식품영양학부, (재)순천바이오헬스케어, (재)순천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등에서 후원했다.

앞서 이반촌농원(주)은 지난 2018년 중기부 과제를 통해 돌배가 간 해독작용에 우수하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특허 등록을 마쳤다.

이를 계기로 지난해 인체 세포 실험연구를 위해 전남대학교, 연세대의대, 울산



지난 25일 순천 저전나눔터에서 열린 전남 토종자원 ‘산돌배’ 기능식품 산업화 전략 포럼 후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반촌농원 제공

대 의대, 경희대 의대와 함께 산학연구단을 구성한 후 인체 간 세포실험을 추진해 왔으며 이후 간암 및 지방간, 간경화 개선에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

이같은 연구 성과를 토대로 올해 전남테크노파크의 뿌리산업 연구과제로 선정, 전남대학교, 순천바이오 헬스케어 연구센터와 함께 임상실험 전 단계인 동물 실험을 추진한 결과 지방간과 속취 해소에 도움을 준다는 효과가 입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특허 2건과

SCI 해외 논문 2건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동훈 이반촌농원(주) 대표이사는 “전라남도의 지원으로 1년여 동안 전남대학교와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 산돌배가 아토피 개선과 혈압 낮춤, 지방간 개선에 탁월하다고 입증됐다”며 “올해 임상실험을 철저히 준비해 최대 산지인 전남과 순천의 우수 특산물로의 정착은 물론 건강기능 식품 소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천=배서준 기자